

북한의 양돈업 현황과 남북협력사업



이근상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 축산시험장장

1. 북한의 양돈업 개황

북한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격심한 식량난으로 농후사료를 주사료로 하는 양돈업은 더욱 사료사정이 악화돼 돼지의 사육두수가 너무나 급격히 감소되어 돼지의 생산체제도 무너지고 사육기반마저 붕괴 단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사육되고 살아 있는 돼지들도 정상적인 사양관리를 못하다 보니 그 성장발육이 극히 나쁠 뿐만 아니라 타고 난 유전적 생산능력도 제대로 발육이 될 수가 없어서 최악의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양돈업은 원래 60년대 초부터 80년대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돼지는 다른 축종들보다도 재생산 속도가 빠르고 고기 생산능력과 사료이용성도 높은 가축이라고 하

여 중시하면서 김일성 수령의 교시에 따라 양돈산업 발전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는 돼지의 품종 육성과 우량계통 조성까지도 많이 하였고 양돈 사육기술 개발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원종장과 종축장을 통한 종돈 생산체제도 확립시켜 놓았다.

또한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와 노동자지구 주변에는 비교적 현대화된 양돈시설과 과학화 및 전문화 된 인력배치를 한 대규모의 국영 또는 도

영 돼지공장(양돈장)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돼지고기 생산기지를 다져왔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도 전군중적 운동으로 돼지사육을 촉진하고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의 잉여노동을 이용한 부업양돈으로 호당 2두씩을 사육토록 권장하면서 양돈업 발전에 주력하여 당시만 하여도 남한의 양돈업보다도 여러 면으로 훨씬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북한의 양돈업은 구조적으로 남한과는 다르게 국가가 직접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영축산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축산업을 주축으로 집단사육과 공동생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애축심의 부족과 사육의욕의 결여 등으로 돼지

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부업 양돈도 권장은 하고 있으나 호당 2두로 제한하면서도 일정량의 돼지고기를 의무생산토록 하고 있어서,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했다.

아무튼 이렇게 사육되는 돼지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984년도 기준으로 하여 돼지의 총사육두수중 65.8%가 북한의 서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21.4%, 내륙북부지역은 불과 12.8%가 분포되어 있으며, 돼지를 다사육하는 도는 평안북도과 평안남도, 황해남도과 함경남도라고 한다.

2 돼지 사육두수의 동태

북한의 돼지사육 두수는 북한에서 발간되는 가축 통계가 없어서 그동안은 발표자료나

발표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국제기관으로 부터의 식량지원을 위한 국제조사단에게 북한 정부가 제시한 자료와 현지 답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된 UN의 식량농업기구(FAO)의 인터넷에 의한 돼지사육 두수를 보면 표1과 같다.

북한의 돼지사육두수는 대체적으로 '70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남한보다는 훨씬 많았다.

그러나 '91년도를 고비로 그 이후에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즉 '70년도에는 220만 두이던 것이 '80년도에는 420만두,



▲ '98년도 이후에는 북한의 돼지 사육두수가 다소 증가되기 시작하여 '99년도에는 297만 두로서 남한의 38% 수준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90년도에는 580만두로 크게 늘어났고, '91년도에는 608만두로서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크게 감소되어 '95년도에는 267만두로 격감되고 '97년도에는 186만두 미만으로까지 감소되어 '91년도 이후 6년만에 무려 1/3수준으로까지 격감되었다.

그리고 남한의 사육두수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는 남한보다도 약 2~2.5배나 더 많았으며 '85년도에도 1.7배 정도가 더 많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한의 돼지사육 두수가 급증되고 북한의 사육두수는 감소됨에 따라서 '93년도에는 반전되어 남한의 68% 수준으로 줄고 '97년도에는 불과

〈표1〉 남북한의 돼지 사육두수 비교

단위:천두

구분	65	70	75	80	85	90	91	93	95	97	99
북한(A)	1,135	2,200	3,100	4,200	4,800	5,800	6,080	4,000	2,674	1,859	2,970
남한(B)	1,382	1,126	1,247	1,784	2,853	4,528	5,046	5,928	5,955	7,096	7,864
대비(A/B)	82%	196%	249%	235%	168%	128%	120%	68%	41%	26%	38%

자료 ① 북한 : FAO 통계자료(2000. 7)(<http://apps.fao.org/>)

② 남한 : 축산통계 총람(1998), 축협조사월보(2000. 4) 축협중앙회

26% 수준으로까지 격감되었다. 그러나 '98년도 이후에는 북한의 돼지사육두수가 다소 증가되기 시작하여 '99년도에는 297만 두로서 남한의 38% 수준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3. 돼지고기의 수급과 소비 동향

북한의 돼지고기 수급은 역시 다른 축산물과 같이 국내산만으로 거의 수급되고 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지난 '87년도부터 약 10년간은 매우 적은 물량이 수입된 바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단되고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공급은 주로 국가의 배급제도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극소량이 국영상점이나 농민시장을 통하여 거래 또는 구매되기도 하지만 그 물량이 매우 적고 농민시장의 경우는 가격이 엄

청나게 비싸서 보통사람들은 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돼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표2에서와 같이 '70년도 이후 '91년도까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91년도에는 12.4kg를 소비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때까지는 남한보다는 훨씬 많이 소비하였다.

그러나 '91년도 이후에는 역시 돼지의 사육두수의 격감으로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격감되므로 소비량도 크게 감소되어 '97년도에는 '91년도의 30% 수준인 3.7kg로까지 격감되어 같은 해 남한의 15.3kg인 불과 24% 밖에 되지 않아 남한의 '74년도 소비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98년도에는 4.8kg로서 다소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돼지고기 소

비량은 육류소비량 중 66~75%를 차지하여 일반적으로 남한보다는 돼지고기를 훨씬 더 선호하고 많이 먹는 셈이다.

4. 돼지의 사육기술 현황

북한에서 사육되고 있는 주요 돼지 품종은 평양종 돼지를 비롯하여 피현종돼지, 자모종돼지, 대백종돼지 등이고 그 밖에도 북부백색종돼지와 흰띠돼지, 해산돼지 등도 있는데 실용돈으로서 2원 또는 3원 교잡종을 많이 사육하고 있다.

평양종돼지는 북한의 중화지방돼지와 북부백색종돼지 및 대백종돼지(애요크셔종)의 3품종간의 교잡 육성한 품종이고, 피현종돼지는 역시 북한의 지방종돼지에 안흥종돼지(버크셔종)와 중국 장이종돼지 교배종 중에서 선발 육성한 품종이며, 자모종돼지는 랜드레이스종의 개량품종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널리 권장 보급되고 있는 3원 교잡들은 평양종(암컷)×피현종(수컷)→F1(암컷)×자모종(수컷) 그리고 대백종(암컷)×자모종(수컷)→F1(암컷)×피현종(수컷) 등으로서 특이한 것은 남한에서 주로 모돈으로 쓰고

〈표2〉 북한의 육류와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kg)

구분		1970	1980	1985	1991	1993	1995	1997	1998
북한	육류	9.0	13.1	14.5	16.6	10.6	7.9	5.6	6.9
	돼지고기	6.0	9.3	10.3	12.4	7.4	5.2	3.7	4.8
	돈육비율(%)	66.7	71.0	71.0	7.47	69.8	65.8	66.1	69.6
남한	육류	5.3	11.3	14.4	21.7	24.7	27.5	29.3	28.1
	돼지고기	2.6	6.3	8.4	11.8	13.9	14.8	15.3	15.1
	돈육비율(%)	49.1	55.8	58.3	54.4	56.3	53.8	52.2	53.7

자료 : 표1과 같음

있는 랜드레이스(자모종)은 부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자돈의 이유시기는 표3과 같이 보통 45~60일령일 때이고 번식 개시는 대체로 10~12개월령 일때로서 이들은 모두 남한보다 훨씬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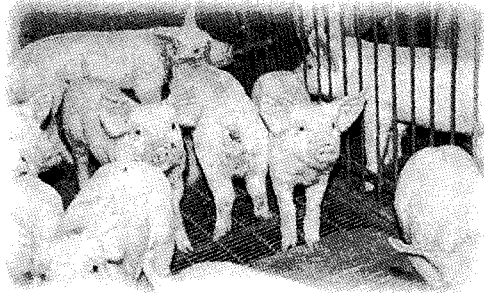
또한 급여사료의 구성은 임신돈의 경우는 대체로 농후사료가 40~50% 정도이고 다즙사료 35~40%에 청초 등 조사료를 15~20% 정도로 혼합 급여한다고 한다.

그리고 돼지의 비육은 일반적으로 속성비육방법보다도 보토입육방법으로서 7~8개월령에 80~100kg 일때까지 비육시켜 남한과 다른점이 많다.

5. 양돈업의 남북협력 가능성

양돈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도 역시 북한의 수용 여건과 남한의 경제 부담능력을 우선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남북간의 화해



▲역시 정부차원보다도 민간 주도하에서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절박해진 북한의 양돈업 복구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와 협력관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남북간에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남한에서 추진한 대북 축산업의 지원 협력사업을 보면 정부차원보다도 민간단체 중심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쪼트소와 쪼트염소 그리고 그의 유가공 및 처리설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적은 양의 계란이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국제기구를 경유한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분유가 지원되는 정도이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소규모 가축사육사업으로서 초식가축인 염소와 토끼사육지원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의한 축산복구 사업으로서 가금사육과 농촌금융지원대부사업, 염소사육과 사료공장 보수건설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제까지는 양돈업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사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양돈업에 대한 가능한 대북협력사업이라 한다면 역시 정부차원보다도 민간 주도하에서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절박해진 북한의 양돈업 복구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은 예로서는 현재까지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낮은 대단

<표3> 남북한의 주요 돼지 사육기술 비교

구분	북한	남한
주요 돼지 품종	평양종, 피현종, 자모종, 대백종, 북부백색종 등	랜드레이스종, 대요크셔종, 햄프셔종, 듀록종 등
자돈 이유 시기	45~60일(14~16kg)	28~35일(8~10kg)
번식 개시 시기	10~12개월령	8~10개월령
연간 자돈 생산	2산	2~2.2산
급여사료(임신돈)	농후사료 40~50%	완전 배합사료
비육방법	보통비육 7~8개월령(80~100kg)	육성비육 5~6개월령(90~110kg)

위 돼지공장 등의 시설 개보수와 우량 종돈의 입식으로 북한의 값싼 인력 등을 활용한 합작 양돈업이나 육가공시설의 이전이나 설치에 의한 돈육가공사업 등에 투자하여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는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양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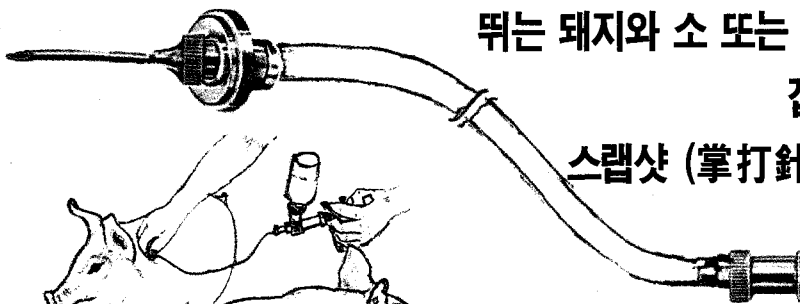
복구와 앞으로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정한 기간만이라도 최대한의 종돈이나 돼지의 사양관리용 기구 용품 등의 지원도 중요하면서도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양돈업의 협력사업으로서 양돈기술 교류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양돈산업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영농기술 교류사업으로서 양돈의 전문가나 기술자 등의 상호 초청

방문이나 기술연수 그밖에도 학술 문헌 등의 기술정보의 아낌없는 교류로서 양돈업에 관련되는 문헌이나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등의 상호 교류는 남북한의 양돈업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원 협력사업 등은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도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양돈**

스랩샷(SLAP-SHOT) 주사침



뛰는 돼지와 소 또는 다른 가축에 예방
접종을 할 때 아래
스랩샷 (掌打針)SLAP-SHOT를
써보십시오.

본 스투샷(SLAP-SHOT)의 특징

1. 본 스투샷은 움직이는 가축에 주사하기 용이하다.
2. 주사기 연결부와 주사침연결부(ADAPTER)가 금속으로 되어 수명이 길다.
3. 본 비닐호스는 4계절용으로 특수제작하여 유연성이 좋다.

KW 강 화 축 산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전 화 : 305-2548, 374-7013
H·P : 011-9787-2548
FAX : (02)308-1030